



베네수엘라

남미공동시장 가입 배경 및 영향

2005년 12월 8, 9 양일간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제29회 남미공동시장(Mercosur) 정상회담에서 베네수엘라의 정회원국 가입이 공식 승인되었다. 베네수엘라는 향후 3년간 자국의 관세율을 남미공동시장의 대외공동관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투표권 행사 없이 공식회의 참석만 허용되는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정회원국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안데스공동체(The Andean Community, CAN)¹⁾ 회원국인 베네수엘라가 남미공동시장 정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은 남미공동시장이 경제블록의 복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을 예외 취급한 사례로 눈길을 끌고 있다.

허용배경은 경제보다 정치적 논리

1991년 3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

이, 그리고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아순시온 조약'을 체결하여 자유무역지대로 출범한 남미공동시장은 1995년 불완전한 관세동맹 단계로 발전하였으며, 중남미 전체를 하나의 정치·경제블록으로 포괄하기 위해 칠레와 볼리비아를 준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안데스공동체와 FTA를 체결하여 남미자유무역지대(Sou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SAFTA) 결성의 첫발을 내디뎠다. 남미공동시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개방적 지역주의라는 대외교섭 원칙하에 EU 및 중동국가들과도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력 확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미공동시장은 원칙적으로 회원국이 2개 이상의 경제블록에 동시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멕시코나 볼리비아 등 주변국의 정회원 가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

1) 1969년 '안데스조약(Andean Pact)'을 조인하면서 발족된 지역경제통합체로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이 자체 규정을 벗어나면서까지 베네수엘라의 정회원국 승격을 허용한 것은 단순히 교역 및 투자 확대 등 경제적인 실리만을 추구하기 위한 점이 아니라 사실 을 시사하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입장도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석유를 제외한 대다수의 원자재와 소비재를 수입해야 하는 베네수엘라로서는 자국의 평균 수입관세보다 높은 남미공동시장의 대외공동관세를 수용할 경우 향후 상품교역에 있어서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석유관련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베네수엘라 산업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보다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미 차베스 정부의 외환 및 가격통제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기업들은 금번 남미공동시장 가입으로 브라질産 제품 수입이 증가할 경우 자국 내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온대보다는 열대기후에서의 농산물 생산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농부 및 목축업자들은 최대 2배 이상 가격 차이가 나는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농축산물 수입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차베스 정권이 수입관세 부담, 산업활동 위축 등의 경제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남미공동시장 가입을 추진한 것 역시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치적인 맥락에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차베스, 볼리바르 노선 추구

1999년 빈민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집권한 차베스 대통령은 극심한 빈곤 및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미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소위 '볼리바르 혁명'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안데스 지역을 스페인 식민통치에서 해방시킨 시몬 볼리바르 장군으로부터 시작된 볼리바르 혁명의 주된 이념 중 하나는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를 거부하고 중남미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 주도의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America, FTAA) 창설에 적극 반대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미주볼리바르기구(Bolivarian Alternatives for the Americas, ALBA)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EU식 모델을 기초로 중남미 내의 정치·경제·사회·인프라 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ALBA는 2004년 12월 쿠바와 처음으로 기구 설치에 합의하였으며, 양국 간 석유 및 의료기술 교환을 통해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한 바 있다.

또한, 차베스는 석유 수출로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역내 운송 인프라 건설 등의 지역통합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ALBA 계획의 일환으로 중남미 국가들과의 에너지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3국 합작 에너지 기업인 페트로수르(Petrosur) 창설을 제안한 차베스는 이어서 카리브 해 연안 국가들과의 페트로카리베(Petrocaribe) 창설, 안데스국가들과의 페트로안디나(Petroandina) 창설을 연이어 주창하고 나섰다. 이 중 지난 9월 협정 체결이 완료된 Petrocaribe는 1980년

체결한 산호세 협정²⁾을 확장한 형태로, 베네수엘라는 카리브 해 연안 12개국에 대해 특혜조건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에너지 보조금정책을 통해 역내 및 국제무대에서의 지원세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막대한 석유자원을 바탕으로 한 에너지 통합정책과 더불어 베네수엘라는 중남미권역 뉴스를 독점해 온 미국 및 유럽 미디어의 편향된 시각에 맞서서 중남미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우루과이, 쿠바, 아르헨티나와 함께 중남미 뉴스 전용채널인 텔레수르(Telesur)를 공동 설립, 지난 7월부터 24시간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차베스의 이러한 외교행보의 성과는 11월 4, 5일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제4차 미주정상회담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소속 34개국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금번 정상회담에서는 1994년 이래 현재까지 협상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FTAA 협상재개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다루어졌으나, 미국, 멕시코 등 29개국이 내년 4월 협상 재개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이 베네수엘라와 함께 미국 주도의 FTAA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석유 조달, 국채 구입 등 베네수엘라의 협력이 절실한 아르헨티나는 베네수엘라의 反 FTAA 입장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주기구 34개국 중 29개국이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5개국의 반대로 FTAA 협상 재개가 결렬된 것은 남미공동시장이 미국 중심의 FTAA 협상에서 중남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협상주도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FTAA 등 미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항하여 중남미 전체를 하나의 거대 블록으로 결집하려는 볼리바르 노선을 추구하는 차베스로서는 남미공동시장 가입을 통해 이들과의 공조체제를 보다 가시적인 형태로 드러낼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남미공동시장 : 에너지 공급원 확보

한편, 남미공동시장으로서도 남미대륙 남쪽에 집중되어 있는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북부에 위치한 베네수엘라 가입에 특히 관심을 쏟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미지역 경제통합 활성화의 일환으로 운송, 에너지, 통신 등 인프라 통합계획³⁾을 추진하고 있는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로서는 세계 5위, OPEC 3위의 석유 생산국인 베네수엘라를 블록 내로 끌어들이 역내 에너지 통합체계를 강화할 유인이 충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남미공동시장의 양대 주축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이미 지난 5월 베네수엘라와 3국간 에너지정책 공조를 통해 역내 에너지 통합을 추진하는 Petrosur 설립 기본협정

2) 1980년 베네수엘라는 멕시코와 함께 중미지역과 카리브 해 연안 국가들에 대해 국제유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하는 산호세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년 단위로 공급조건을 갱신해 왔음.

3) 2000년 9월 남미 12개국 정상에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제1차 남미정상회담에서 카르도주 브라질 대통령은 남미지역 인프라 통합사업(Initiative for Regional Infrastructure in South America, IIRSA)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미주개발은행(IDB), 안데스개발공사(CAF) 등의 자금지원 하에 남미지역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8개 통합허브 등 총 33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에 서명한 바 있다. 천연가스 공동개발, 석유 자원 공동탐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 협정은 베네수엘라의 PDVSA, 브라질의 페트로브라스(Petrobras), 아르헨티나의 ENARSA 등 3국 국영에너지회사의 공동참여 하에 베네수엘라 오리노코 벨트 개발, 브라질 Abreu de Lima 정유단지 건설, 아르헨티나 신규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차베스의 이러한 석유외교는 개별 국가단 위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해 아르헨티나의 에너지 위기 시 PDVSA를 통해 동국에 400만 배럴 상당의 연료유(fuel oil)를 공급해준 차베스는, 反 FTAA 입장을 공고히 한 금번 미주정상회담 이후 자국을 방문한 키르츠너 대통령과 에너지 및 통상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5개의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근거하여 양국은 PDVSA와 ENARSA의 합작회사를 설립, 연간 500만 배럴의 경유를 아르헨티나에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2월 PDVSA는 페트로브라스와 함께 브라질 북동부 페르남부코 주의 수아페 지역에 총 25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23만 배럴/day 규모의 정유공장 건설 기공식을 거행하였으며, 양사는 베네수엘라 남부 수크레 지역의 가스전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차베스는 남미공동시장의 일원인 우루과이와도 오리노코 벨트를 공동 탐사하고, 동국에 대해 향후 25년간 43,600배럴/day의 원유를 공급하기로 하는 에너지협력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차베스 대통령은 금번 남미공동시장 정상회담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로부

터 브라질의 아마존 유역을 거쳐 아르헨티나로 이어지는 총연장 7~8,000km, 총비용 120억 달러의 대규모 천연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해 각국 정상들을 고무시키기도 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오일머니(oil money)는 남미국가들에게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금년 3월 아르헨티나의 외채문제 해결을 위해 동국의 정부발행 미화채권 구입을 약속한 베네수엘라는 현재까지 9.5억 달러 상당의 아르헨티나 국채를 구입하였으며, 지난 11월 정상회담에서는 동국의 IMF 채무 상환에 적극 협조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IMF 채무 전액상환을 연달아 선언하고 나선 것은 베네수엘라의 남미공동시장 정회원국 가입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남미국가들이 베네수엘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남미 최대 석유수출국의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IMF 관리체제를 졸업하고 남미통화기금을 창설하여 역내 경제주권 회복을 도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정체성 위기에 대한 우려 제기

베네수엘라가 남미공동시장의 정회원국으로 공식 승인됨에 따라 차베스는 남미 지역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볼리바르 노선의 확산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며,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도 역내 제 1위의 석유 수출국을 맞아들이면서 에너지 통합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중간 규모의 국가를 받아들임에

따라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같은 거대국가와 우루과이, 파라과이의 소국으로 이루어진 현 남미공동시장 구조의 균형감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세력 판도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란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위기 이후 브라질과 통상마찰을 빚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무역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보다는 수입제한조치 도입을 통한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동차 시장 개방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양국간 정상회담 및 에너지 보조, 외채 매입 등으로 공조체제가 강화된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의 협력관계는 향후 브

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세력 다툼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각에서는 베네수엘라의 가입이 남미공동시장의 정체성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출범 당시 민간주도의 시장개방 및 지역통합을 주창하고 역내 민주정체를 추구한다고 밝혔던 남미공동시장이 외환통제, 가격통제 및 토지 국유화 등으로 시장경제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차베스 정권을 맞이함에 따라 향후 경제블록의 기본 노선에 수정을 가하는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안 영 은】